

##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가정과 교과교육의 연구동향

-6차,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양 정 혜\*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가정교육 전공 박사과정)

신 상 옥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가정과 교과교육의 연구 동향을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분석하여 연구실태를 알아보고 앞으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정과 교육은 교수 요목 시기를 거쳐 중등 교육의 공통필수교과로서 자리잡아왔고 학문적 연구와 현장의 실태 연구를 통해 가정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가정과 교육에 관한 교과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창설과 학회지 창간이 큰 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2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가정과교육학회지의 간행과 가정과 교육의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 6차, 7차 교육과정의 실시 시기인 1992년부터 2002년도까지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와 대한 가정학회지에 게재된 가정과 교육 관련 논문은 총 162편이다. 이 논문들을 연구 내용에 따라 교수방법, 교과인식, 교사교육, 교육과정, 교과서와 교육내용, 교육평가와 활동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교육과정시기별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발표되었는지 분석하였다.

1990년대는 교육과정 시기상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이 진행된 시기이다. 다른 교육과정 시기와 달리 제 6차 교육과정부터는 정부 위주의 일정한 교육과정이 아닌 자율성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기술, 가정, 실업계열은 전체 교과 영역에서도 명칭, 필수·선택 구분, 배당시간 등에 큰 영향을 받아 빈번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정과 교사들과 연구자들은 교과과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석 대상이 된 연구들은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다루고 있었으며 각 교육과정 시기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만, 대체로 단기간의 연구들로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살피는 종적 연구가 부족한 편이었다. 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던 1990년대 후반에는 현장 교사들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과 교사교육과 교육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 분야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교육의 연구 동향은 교과과정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주면서 앞으로 연구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가정과 교과교육 연구는 가정과 교육이 실시된 시기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최근의 연구 동향과 연구의 수준은 가정과 교육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